변화와 세습:
한국 사회의 세대간 신분이동 및 성취구조

방하남 · 김기헌(한국노동연구원)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직업적 지위는 귀속적 지위의 근원으로서의 '가족'과 개인의 업적을 쌓는 장소로서의 '학교', 그리고 직업적 지위획득의 장으로서의 '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가족-학교-노동시장으로 이어지는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계층화의 과정은 개인의 세대내 성취과정을 하나의 시간축(개인적 시간)으로 한다면, 사회적 변화와 변동을 거치는 동안 이루어지는 세대간 지위세습을 또 하나의 다른 시간축(사회적 시간)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과정(status attainment process)을 모형화하고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인이 속한 가족의 귀속적 지위와 자신의 업적적 지위,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변동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 곧, (1) 학교에서 노동시장을 거치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과정(교육->직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개인의 귀속적 지위와 업적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가, (2) 그러한 사회적 지위의 세습-획득과정이 연령세대(age cohort)를 거치면서 보다 열린 구조로 발전했는가 아니면 고착화의 과정을 밟았는가, (3)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세습 및 획득과정이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지위획득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부친의 학력] → [본인의 학력] → [본인의 초직] → [본인의 현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장 주된 경로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대간 세습과정에서 부친의 직업보다 부친의 학력의 영향이 훨씬 크며 세대내 성취과정에서 가족배경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본인의 학력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연령집단별로 지위획득과정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세대내 성취과정은 연령세대를 거치면서 업적적 요인(교육)이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 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나, 사회적 지위의 세대간 세습과정에 있어서는 귀속적 요인의 영향이 단선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반대로 증가하여 왔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은 전남/전북출신보다 경남/경북출신자들의 지위획득과정이 보다 정연하고 일관되며 부모세대의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1. 경제적 계약과 사회적 분배: 가족-학교-노동시장

한 사회의 불평등구조 혹은 구조화된 불평등은 어느 한 시점에서의 횡단면적 분석의 틀을 통하여 그 얼개를 조망해 볼 수 있으나, 사회계층이론에 의하면 불평등의 양태와 정도가 어떻게 현재의 관측된 형태로 자리잡게 되었는가는 그 사회에 속한 개인들의 사회적 성장과정, 보다 구체적으로, 성장기-학습기-

사회적 활동기를 거치는 사회경제적 성취과정(achievement process)과 그러한 성취과정의 외부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기회구조(opportunity structure)를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에 의하면, 한 사회의 기회구조는 보다 구체적으로 등가(等價)의 원칙에 기초한 경제적 교환구조와 권위, 권력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적 교환구조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Blau, 1964; Toennis, 1964[1887]). 이와 관련하여 한 사회의 본질을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과정으로 볼 때, 사회적 불평등이론에 의하면,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결과적으로 받는 보상은 이론적인 '자유시장'(free market)에서처럼 순수한 경제적 교환과정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사회적 교환과정에 의해서 분배된다고 보고 있다(Goldman and Tickamyer, 1984; Lenski, 1966; Weber, 1966).

한편 사회적 교환과정을 지배하는 자원으로서의 권위와 권력은 개인의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부분 그 개인이 출생해서 자라난 가족의 경제사회적 지위에서부터 유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계층이론에 의하면(Curtis, 1984; Hauser, Sheridan, and Warren, 1998), 사회적 불평등의 분석에 있어서 '가구' 혹은 '가족'은 사회적 교환을 위해 개인이 동원하는 자원으로서 학교와 노동시장을 거치는 경제사회적 성취과정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들어와야 되며 "개인이 (사회적 교환과정에서) 얻게 되는 배분은 ... 경제적 교환과정에서의 개인의 생산적 역할보다는 비경제적(사회적) 관계와 사회의 분배구조에 더 의존한다"고 주장한다(Curtis, 1986: 169).

본 논문은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과정(status attainment process)을 모형화하고 그러한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인이 속한 가족의 귀속적 지위와 자원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사회적 지위가 (계급, 지위, 권력 등에 의해) 다차원적으로 결정되던 전산업사회와는 달리 현대 산업사회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지위는 직업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산업사회론자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런시만(Runciman, 1977)에 의하면, 직업은 사회적 지위의 다차원을 통합할 수 있는 단일지표이며, 파킨(Parkin, 1971)에 의하면 "현대 사회에서의 전 보상체계의 중추는 직업질서"이다.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7)도 위세,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지위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직업구조에 그 근원이 있으며 직업구조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제도와 경제를 연결하는 매개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거의 많은 연구들에서처럼 직업적 지위를 개인의 사회적 성취지위를 대표하는 지표로서 설정할 것이다.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직업적 지위는 개인의 학력취득을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하며 직업적 지위에 있어서의 불평등은 많은 부분 학력취득상의 불평등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계층을 구조화하는 사회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 '학교'는 귀속적 지위(자원)의 근원으로서의 '가족'과 직업적 지위 획득의 장으로서의 '노동시장'을 연결하는 주요 매개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속한 가족의 귀속적 지위도 따라서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적 지위에 의해서 많은 부분 결정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측정의 편의상 아버지(없는 경우는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직업적 지위를 개인의 귀속적 지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2. 사회적 변동과 세대간 지위세습

가족-학교-노동시장으로 연계되는 개인적 성취와 사회적 계층화의 과정은 세대내 개인의 생애과정을 하나의 시간축(개인적 시간)으로 한다면, 사회적 변화와 변동을 거치는 동안 이루어지는 세대간 지위세습을 또 하나의 다른 시간축(사회적 시간)으로 하고 있다. 세대에 걸친 사회적 시간의 흐름은 필연적으로 기존의 경제사회적 질서의 변동을 수반하며 이러한 변동과정에서 동일세대에 속한 개인들(cohort)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회와 제약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파킨(Parkin, 1971)의 말을 빌리면, "어느 사회나 특권적 위치를 점한 계층은 자신의 자녀세대가 자신들과 비슷한 계층위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경제적 자원의 동원에 있어서의 계층간 불평등으로 인해 부모세대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계층의 강한 세습화를 낳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근대화론자들(Davis, 1962; Davis and Moore, 1945; Lipset and Bendix, 1964)의 주장에 의하면 한 사회의 근대화-산업화가 진행될 수록 그 사회의 기회구조는 보다 평등해지고 따라서 개인의 성취지위(직업적 지위)가 개인의 귀속적 지위에 의해 결정되는 정도가 점차 약해지며 결과적으로 보다 평등한 사회로 발전해 나간다고 본다. 산업화와 함께 보다 평등한 사회로의 발전의 촉매제에 대해서는 특수주의(particularism)에 입각한 전통적 가치체계의 보편주의(universalism)로의 진화를 지적하고 있으며 보편주의 가치체계 하에서는 사회적 성취과정이, 산업사회에 특징적인 생산과 분배체계의 변화로 인해서, 개인의 귀속적(ascriptive) 요인보다는 업적적(meritocraric) 요인, 특히 개인의 교육수준(education)과 능력(ability)에 의해서 더 결정된다는 요지의 주장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또 다른 관심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과정과 결과가 귀속적 지위에 의해 세습되고 결정되는 정도가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왔는가, 즉 보다 평등한 열린사회로 발전해 왔는가 아니면 전 세대의 불평등구조가 고착 내지는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개발의 정치경제 그리고 새로운 불평등체계

위에 언급된 근대화론자들의 선형적인 사회발전관이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너무 단순하며 낙관적이라는 것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사회계층화의 과정에서 산업화와 탈산업화의 발전효과에 관한 논쟁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주장들은 산업화 과정에서의 국가의 성격과 개발의 정치경제 그리고 그에 따라 결정지어지는 경제사회적 분배메카니즘의 특성에 주목한다. 특히 종속발전으로 특징지어지는 제3세계에서의 경제사회적 발전은 정치의존적(politically contingent)이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의 사회계층화는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계획과 정책의 복합적 작용요인을 고려해야한다는 지적이다(Abott and Smith, 1984; Burstein, 1985; Dahrendorf, 1959; Northrup and Larson, 1979; Parkin, 1971; Sorokin, 1959).

이와 관련하여 방하남·이성균(1996)은 "신흥개발국에서의 구조변동과 세대간 계급이동"의 연구를 통해 전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이전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서구사회와는 달리 한국에서의 지난 3-40년간 경제개발의 역사는 사회적 재화의 학대재생산과정이었음과 동시에 새로운 불평등체계가 생성·고착되어 온 새로운 계층화의 과정이었음을 경험적 분석을 통해 보여준 바 있다. 하울(Hout, 1989)도 한국과 비슷한 후발국인 아일랜드의 사례연구를 통해 단축된 산업화과정의 사회적 격변기(1950-1975)에 이루어진 세대간 계급이동체계가 전통적인 산업화가설에서 예상하는 대로 보다 열린 사회로의 단선적 진보를 보여주는 대신 기회와 성취에 있어서 사회계급간 차이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을 확인하면서 이를 "새로운 기회, 지속적인 불평등"(new opportunities, old inequalities)이라는 말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다.

4. 불균등발전과 불평등의 내부화

한국의 산업화과정은 대외적으로는 종속발전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역간 극심한 불균등발전(uneven development), 즉 종속발전의 지역적 내부화과정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의 사회적 지위세습과 세대내 지위획득과정의 분석에 있어서 지역간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경제사회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분배된 지역과 빈곤하게 분배된 지역 출신간에 사회적 지위의 성취과정과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측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해 보다 견고한 세대간 지위세급 그리고 보다 확실한 세대내 성취과정이 이루어졌을 것을 가정한다. 다시 말하면 다차원에서의 지역적 불균등발전으로 인하여 전자의 경우 후자보다 부모세대의 사회적 자원이 자녀세대의 사회적 지위획득에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세대내 성취과정에서 학교교육과 직업적 지위획득간의 연계가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른 한편 켈리(Kelley, 1988)와 보우든(Boudon, 1973)은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경제발전과 사회계층

화의 과정이 단선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다. 켈리(Kelley, 1978)에 의하면 부모세대에서 경제적 자원(소득과 부)과 사회적 지위(교육수준)가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을수록 자녀세대의 사회적 성취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며 그만큼 열린사회로의 발전이 더딜 것이라는 것이다. 보우든(Boudon, 1973)은 근대화와 함께 후세대의 학교교육기간은 더 길어지게 되며 그만큼 교육과정에서 부모의 자원과 선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계가 많아지면서 자녀의 교육과 직업에 미치는 부모세대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지적들은 한국사회에 특징적인 부모세대의 높은 교육열, 사회적 교환과정에서의 개인적·집단적 연줄(network)의 중요성, 인구에 비해 극히 제한된 자원과 기회에 대한 치열한 경쟁 등을 고려해 볼 때 본 논문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즉 1960년대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업화와 함께 농촌의 노동력이 대거 도시의 제조업부문에서 생산직으로 취업하고, 국가행정기구의 확대와 함께 직업적 지위 상승의 기회가 넓게 열렸던 1960-70년을 지나서 1980-90년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새로운 계급(특히 신중산층)에 의한 세대간 지위세습이, 주로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통하여, 새로이 고착화되어 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상에서 논의된 연구가설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1)학교에서 노동시장을 거치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과정(교육->직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개인의 귀속적 지위(부모의 사회적 지위(교육수준·직업지위))에 의해 결정되는가, (2)그러한 사회적 지위의 세습-획득과정이 연령세대(age cohort)를 거치면서 보다 열린 구조로 발전했는가 아니면 고착화의 과정을 밟았는가, (3)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세습 및 획득과정이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Ⅱ. 자료 및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변수

가. 분석자료

본 연구를 위한 분석자료로 우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1차년도(1998년) 한국노동패널(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자료를 이용하였다. 응답자 중 현재 취업자에 해당하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하는 응답자 6,427명중에서 부친의 직업, 본인의 초직 등의 주요 분석변수에 누락값(missing values)이 있는 경우(538개)와 초직과 현직이 동일한 응답자(1,690개)를 제외한 4,199개의 사례가 최종분석표본이 되었다.

나. 분석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성, 연령집단(cohort), 본인의 출생지역, 본인의 학력, 부친의 학력, 1998년 조사당시 본인 현직의 직업지위, 15세 이후 첫 직업의 직업지위, 본인이 만 14세 무렵 부친 직업의 직업지위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연구와 달리 남성과 함께 여성도 분석대상에 포함을 하되 모형추정은 별도로 하여 신분세습 및 성취구조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부가적으로 비교 분석하기로 한다. <표 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 및 조작 그리고 기술통계들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모형에 사용된 변수는 본인의 학력, 부친의 학력, 본인 현직의 직업지위, 본인 초직의 직업지위, 부친의 직업지위 등이다. 먼저 학력 변수는 수학년수로 점수를 부여했으며 졸업자가 아닌 경우 해당 수학년수의 절반 값을 부여하였다. 지위획득모형에서 학력은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하는데, 수학년수 외에 학력 수준에 따라 순위별로 점수를 부여하거나(Blau and Duncan, 1967; Featherman, Jones and Hauser, 1975; Hope, 1984), 직업 지위에 따른 교육수준을 고려한 척도를 사용(Treiman and Terrel, 1975; Robinson and Kelley, 1979)하기도 하지만 지위획득모형을 분석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수학년수를 선호하는 편이다(Balan, 1968; Holsinger, 1975; Lin and Yauger, 1975; Kerckhoff, 1978; Herz, 1983; Roos, 1985; Treiman and Yip, 1989; 장상수, 1996).

<표 1>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명	변수 설명	단위	평 균	분산
SEX	남자 66.6%(2,796명), 여자 33.4%(1,403명)			
AGE	29세 이하 16.9%(709명), 30대 32.9%(1,381명) 40대 29.1%(1,221명), 50대 이상 21.1%(888명)			
BIRTH	경남 / 경북 34%(1,426명), 전남 / 전북 23.2%(972명) 기타 지역 42.8%(1,798명)			
PEDU3	본인의 학력년수* 무학=0 초등학교(중퇴 또는 재학)=3, 초등학교(졸업)=6 중학교(중퇴 또는 재학)=7.5, 중학교(졸업)=9 고등학교(중퇴 또는 재학)=10.5, 고등학교 (졸업)=12 전문대(중퇴 또는 재학)=13, 전문대(졸업)=14 대학(중퇴 또는 재학)=15, 대학교(졸업)=16 대학원 석사(중퇴 또는 재학)=17, 대학원 석사(졸업)=18 대학원 박사(중퇴 또는 재학)=19, 대학원 박사(졸업)=20	년	11.24	3.52
FEDU3	부친의 학력년수 무학=0 초등학교(중퇴 또는 재학)=3, 초등학교(졸업)=6 중학교(중퇴 또는 재학)=7.5, 중학교(졸업)=9 고등학교(중퇴 또는 재학)=10.5, 고등학교 (졸업)=12 전문대(중퇴 또는 재학)=13, 전문대(졸업)=14 대학(중퇴 또는 재학)=15, 대학교(졸업)=16 대학원(중퇴 또는 재학)=17, 대학원(졸업)=18	년	5.82	4.78
TPOCC	본인 현직의 직업지위(사회경제지수)		38.18	11.94
FNOCC	본인 초직의 직업지위(사회경제지수)		36.77	11.24
FTOCC	부친의 직업지위(사회경제지수)		29.64	11.63

* 졸업이 아닌 중퇴, 재학, 수료, 휴학의 경우 해당 수학기간의 절반 값 부여.

직업 변수는 지위획득모형에서 사용될 경우 주로 직업의 사회경제지수(socioeconomic index)나 직업위세척도(occupational prestige scale)가 쓰이고 있다. 지위획득모형을 분석한 국내 연구자들은 대부분 홍두승의 사회경제적 지위척도(홍두승, 1983)와 트라이만의 국제직업위세척도(Treiman, 1977)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홍두승의 사회경제적 지위 척도는 1975년 인구 센서스 자료의 직업별 소득과 교육의 중앙값 및 1976년 서울시 계층구조조사에서 측정한 31개 대표직업의 위세점수를 사용하여 1974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3digit)별로 점수를 산출한 것으로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다

른 국제적인 척도에 비해 엄밀성 및 세밀성에 있어서 떨어지고 표본에서 여성을 제외한 점[1]과 한국노동패널 자료의 직업코딩이 1992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트라이만의 국제직업위세척도 역시 본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세대간 지위세습에 관한 연구의 경우 사회경제 지수가 더 선호되고 있는 데다(Treiman and Ganzeboom, 1990), 홍두승과 마찬가지로 구분류체계(ISCO-68: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고려사항 하에서 우리 자료에 적용하여 사용하기에 적절한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척도로서 간즈붐 등의 척도(Ganzeboom, De Graaf and Treiman, 1989)와 켈리 등의 척도(Kelley and Klein. 1981)를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직업위세점수로 간즈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간즈붐 등의 척도가 교육, 직업, 그리고 수입의 인과적 연계를 최적화 하는 절차를 통해 나온 것인데 반해서 켈리 등의 척도는 기준으로 삼기에는 아직까지 해석이 분분한 부친의 직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간즈붐 등의 척도는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의 세분류(4-digits)에 대해서도 점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서 켈리의 척도는 단지 14개의 포괄적인 직업 범주에 대해서만 점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세 번째로 간즈붐 등의 척도는 88년에 개정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88)에 따라 점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권고에 따라 92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ISCO-88의 분류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용이 용이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표 2>는 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별로 간즈붐 등의 국제 사회경제지위점수를 제시한 것이다.

2. 분석모형

세대간 신분세습 및 지위획득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LISREL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이용하였다. LISREL 구조방정식모형은 경로모형(Path Model)이라고도 하는데 다변인 간의 선후적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러한 인과관계의 구조 속에서 선행(외생)변수가 후행(내생)변수에 미치는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다른 중간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로 분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Bollen, 1989).

---

1) 홍두승은 여성인구를 표본에서 제외시킨 두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로 계급 및 계층의 단위는 개인보다는 가구가 중심이 됨으로써 여성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며, 둘째로 예산상의 제약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여성인구를 배제시킨 것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홍두승, 1983: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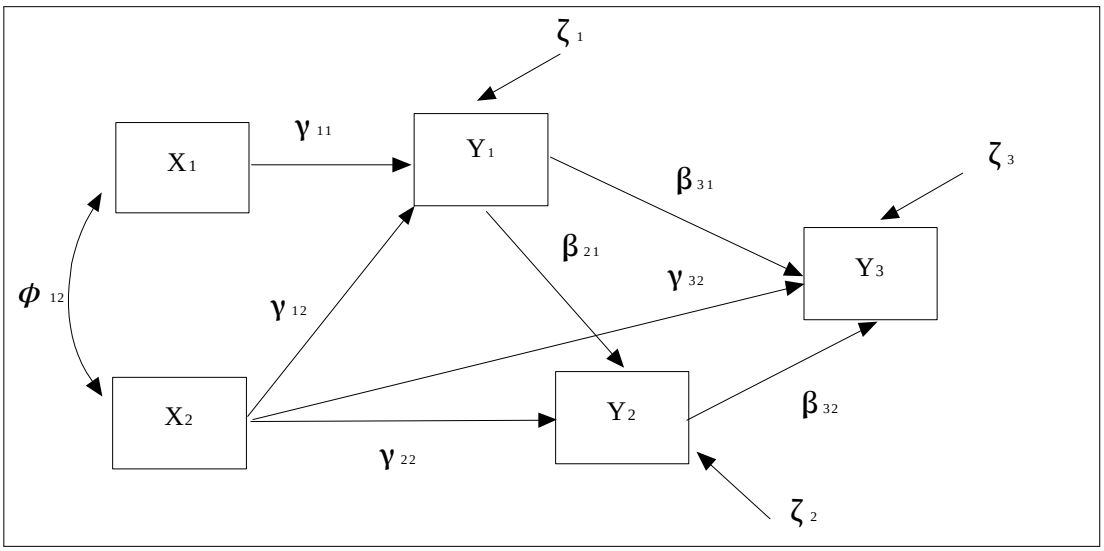
<표 2> 92년 한국표준직업분류 소분류(3digit) 별 국제 사회경제지수 점수

소분류 코드*	점수	소분류 코드	점수	소분류 코드	점수	소분류 코드	점수
1110	77	3110	49	5140	30	7530	26
1120	77	3120	52	5150	43	8110	35
1130	66	3130	52	5160	47	8120	30
1140	58	3140	57	5210	43	8130	22
1150	72	3150	50	5220	43	8140	27
1160	66	3210	50	5230	37	8150	35
1210	70	3220	55	6110	23	8160	32
1220	67	3230	38	6120	23	8170	26
1230	61	3240	49	6130	23	8210	36
1240	58	3310	38	6140	22	8220	30
1250	64	3320	38	6150	28	8230	30
1310	51	3330	38	6160	30	8240	29
1320	51	3340	38	6210	16	8250	38
2110	74	3410	55	7110	50	8260	30
2120	71	3420	55	7120	30	8270	29
2130	71	3430	54	7130	34	8280	31
2140	73	3440	56	7140	29	8290	26
2210	78	3450	56	7210	31	8310	36
2220	85	3460	43	7220	35	8320	34
2230	43	3470	52	7230	34	8330	26
2310	77	3480	38	7240	40	8340	32
2320	69	4110	51	7310	38	9110	29
2330	66	4120	51	7320	28	9120	28
2340	66	4130	36	7330	29	9130	16
2350	66	4140	39	7340	40	9140	23
2410	69	4190	39	7410	30	9150	27
2420	85	4210	48	7420	33	9160	23
2430	65	4220	52	7430	36	9210	16
2440	65	5110	34	7440	31	9310	21
2450	61	5120	32	7510	42	9320	20
2460	53	5130	25	7520	38	9330	29

* 제시한 코드번호는 표준직업분류의 소분류 번호로 1110번은 “입법공무원”, 2310은 “대학 및 고등교육 교수”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7)의 기본모형을 토대로 세대간 신분 세습 및 지위획득 과정을 분석하고 성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은 블라우와 던컨의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된 각각의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블라우와 던컨의 지위획득경로 기본모형(path diagram)



□ **종속변수**(dependent, endogenous): Y_1, Y_2, Y_3

Y_1 : **본인의 학력년수**

Y_2 : **본인 초직의 직업지위**

Y_3 : **본인 현직의 직업지위**

□ **독립변수**(independent, exogenous): X_1, X_2

X_1 : **부친의 학력년수**

X_2 : **부친의 직업지위**

사회적 지위의 획득과정은 귀속적 요인과 업적적 혹은 성취적 요인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이 모형에서 외생변수인 X_1(부친의 학력년수)과 X_2(부친의 직업지위)가 해당되고 후자는 내생변수인 Y_1(본인의 학력년수)과 Y_2(본인 초직의 직업지위) 그리고 Y_3(본인 현직의 직업지위)가 해당된다. 외생변수인 X_1과 X_2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내생변수인 Y_1, Y_2, Y_3 사이에는 선후적 인과관계(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모형화한다. 독립변수인 X_1과 X_2는 본인이 사회이동을 체험하는 출발선상인 초직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귀속요인으로, Y_1과 Y_2는 귀속요인과 도달지위인 현직 사이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고려된다.

이를 선형구조방정식(Linear Structural Equation)**으로 풀이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begin{aligned}
y_1 &= \gamma_{11} x_1 + \gamma_{12} x_2 + \zeta_1 \\
y_2 &= \beta_{21} y_1 + \gamma_{22} x_2 + \zeta_2 \\
y_3 &= \beta_{31} y_1 + \beta_{32} y_2 + \gamma_{32} x_2 + \zeta_3
\end{aligned}
$$

여기에서 B(m x m)와 Γ(m x n)는 계수행렬을 나타내며 B 계수들은 Y 내생변수들간의 직접효과를, Γ 계수들은 X 외생변수들이 Y 내생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나타내준다. 단 추정상 ζ 벡터는 ξ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표본을 통한 모형추정 이외에 앞에서 언급한 주요한 비교집단(남여별, 연령세대별, 지역별) 간에 신분세습 및 지위획득과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성이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표본분석(Multi-Sample Analysis)을 실시할 것이다(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Joreskog and Sorbom 의 *LISREL 7,* 제9장 참조). 다중표본분석은 서로 특성이 다른 나라, 지역 혹은 집단으로부터 추출된 표본들로부터 추정된 LISREL 모형과 그 모형에 포함되어 추정된 계수들이 표본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Joreskog and Sorbom, 1989: 227-244). 본 연구에서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행렬은 다중표본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정된다.

$$\begin{aligned} &B^{(1)} = B^{(2)} = \ldots\ldots = B^{(G)}, \\ &\Gamma^{(1)} = \Gamma^{(2)} = \ldots\ldots = \Gamma^{(G)}, \\ &\Psi^{(1)} = \Psi^{(2)} = \ldots\ldots = \Psi^{(G)} \end{aligned}$$

LISREL에서 다중표본간에 모형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치를 구하는 공식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F = \sum_{g=0}^{G} (N_g / N) F_g (S^{(g)}, \Sigma^{(g)}, W^{(g)}),$$

g는 표본집단, N은 $N_1 + N_2 + \ldots + N_G$의 합으로 총 표본을 의미.

Ⅲ. 분석결과

1. 모형의 평가

LISREL에서는 제시된 분석모형이 전반적으로 주어진 경험자료와 부합하는지 어떤지를 알려주는 부합지수들을 제시하는데 그러한 지수들로는 회귀분석의 R^2과 비슷하게 해석되는 일반부합도(GFI: Goodness of Fit Index)와 자유도를 고려한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잔차의 평균 차이를 보여주는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등이 있다. 1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모델임을 알려주는 AGFI는 GFI 보다 정확한 모형의 부합도 정도를 알려주며 RMR은 분석자료로 공분산(Variance-Covariance Matrix)을 사용한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 상관행렬(Correlation Matrix)을 사용한 경우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표 3>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LISREL 모형에서 이 상관관계 행렬은 경로계수의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인다. <표 4>는 각 분석모형의 부합지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시한 모형들은 포화모형(saturated model)으로부터 점차 간명모형(parsimonious model) 순으로 나열한 것이다.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하지 못하는 포화모형을 제외하고 블라우와 던컨의 성취경로 기본모형인 모형 3이 전반적으로 좋은 부합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변수들의 상관관계 행렬

변수들의 상관관계					
	부친의 교육	부친의 직업	본인의 교육	본인의 초직	본인의 현직
부친의 교육	1.000				
부친의 직업	.549(**)	1.000			
본인의 교육	.485(**)	.332(**)	1.000		
본인의 초직	.347(**)	.305(**)	.508(**)	1.000	
본인의 현직	.310(**)	.275(**)	.525(**)	.501(**)	1.000

** 상관 값이 0.01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4> LISREL 모형부합도 지수

모 델	χ^2	df	GFI	AGFI	RMR
Model 1	.00	0	1.000	-	.000
Model 2	16.60	1	.998	.976	.011
Model 3	16.61	2	.998	.988	.011
Model 4	41.49	3	.996	.980	.021
Model 5	75.58	4	.993	.973	.033

주 : Model 1: 포화모형; Model 2; γ_{21} 제외; Model 3: γ_{21}/ γ_{31} 제외(블라우·던컨 모형);
Model 4: γ_{21}/ γ_{31}/ γ_{32} 제외 ; Model 3: γ_{21}/ γ_{31}/ γ_{32}/ γ_{12}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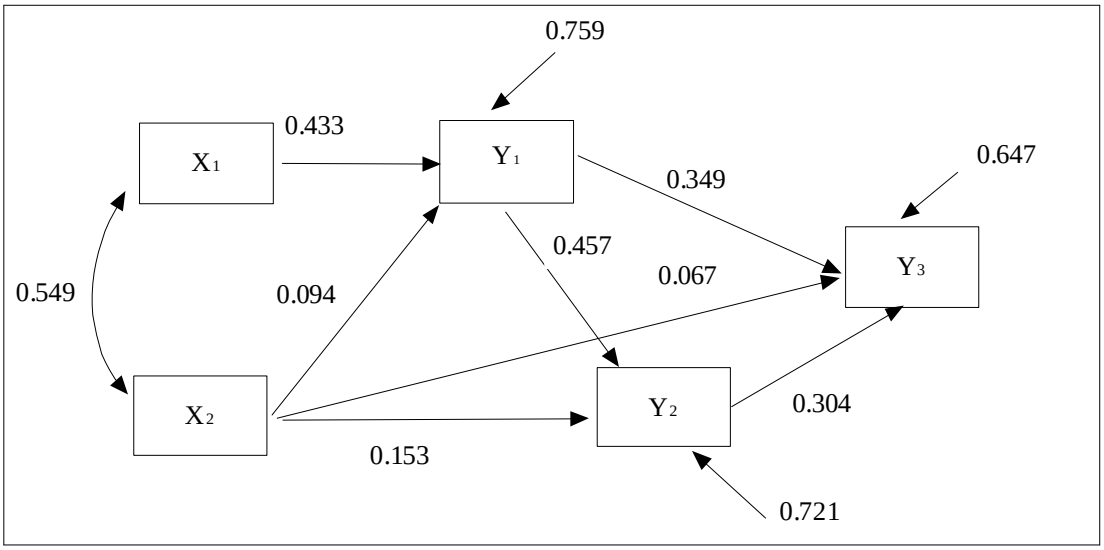
2. 모형의 추정결과

가. 기본모형의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최종모형으로 설정한 LISREL 구조방정식 모형의 추정결과를 <그림 2>와 <표 5>에 제시하였다. <그림 2>에서 화살표 위에 표시된 숫자는 모수추정치이다.

<그림 2>와 <표 5>는 부친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사회적 지위로 직접 세습되기보다는 부친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자녀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두드러진 지위획득 경로임을 보여주고 있다. 곧 지위획득과정에서 부친의 학력 → 본인의 학력 → 본인의 초직 → 본인의 현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가장 주된 경로임을 알 수 있다. 세대간의 지위세습의 정도에 있어서는 직업적 지위의 직접적 세습($\gamma_{2,2}$=0.153; $\gamma_{3,2}$=0.067)보다는 교육수준의 세습($\gamma_{1,1}$=0.433)이 더 강하게 나타나며 이는 과거의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관측된 결과이며 해당 경로계수의 크기도 대략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예: 차종천, 1990, 1997; 장상수, 1996). 이것은 신분세습의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보다 부친의 학력의 영향이 훨씬 크며 지위획득과정에서 가족배경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본인의 학력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사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과거의 많은 연구들(예: Goldthorpe, 1985; Hauser, 1984; Hauser and Grusky, 1988; Simkus, 198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산업사회에 특징적인 세대간 신분세습의 양태로 볼 수 있다(<표 11> 참조).

<그림 2> 기본모형(path diagram)



<표 5> LISREL 구조방정식모형의 추정결과

모 수	추정치	표준오차	t-값
부친의 학력 → 본인의 학력($\gamma_{1,1}$)	.433	.016	26.94
부친의 직업 → 본인의 학력($\gamma_{1,2}$)	.094	.016	5.85
부친의 직업 → 본인의 초직($\gamma_{2,2}$)	.153	.014	11.03
부친의 직업 → 본인의 현직($\gamma_{3,2}$)	.067	.013	4.99
본인의 학력 → 본인의 초직($\beta_{2,1}$)	.457	.014	32.89
본인의 학력 → 본인의 현직($\beta_{3,1}$)	.349	.015	23.64
본인의 초직 → 본인의 현직($\beta_{3,2}$)	.304	.015	20.77
L^2	16.61(d.f.= 2, p=.000)		

<표 6> 선행 변수들이 본인의 초직에 미치는 전체, 직접 및 간접효과

변 수	본인의 초직		
	전 체 효 과	직 접 효 과	간 접 효 과
부친의 학력	.198(.010)*	.000	.198
부친의 직업	.196(.015)	.153	.043
본인의 학력	.457(.014)	.457	.000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표 7> 선행 변수들이 본인의 현직에 미치는 전체, 직접 및 간접효과

변 수	본인의 현직		
	전 체 효 과	직 접 효 과	간 접 효 과
부친의 학력	.211(.016)*	.000	.211
부친의 직업	.159(.016)	.067	.092
본인의 학력	.487(.014)	.349	.138
본인의 초직	.304(.015)	.304	.000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표 6>과 <표 7>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 본인의 학력수준 등 선행변수들이 본인의 초직과 현직에 미치는 전체 효과 및 직접, 간접효과를 분해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본인의 학력이 본인의 초직과 현직 모두에 있어서 직접효과는 물론 전체효과도 가장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간접효과의 경우 본인의 초직과 현직에 대한 영향은 부친의 학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친의 학력과 본인의 학력간의 강한 세습관계와 학력이 직업지위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으로 인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의 사회적 지위획득 과정에서 부모의 학력수준이 갖는 중요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비록 본인의 교육수준이 사회적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그것이 곧 한국 사회에서의 성취구조가 귀속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성취업적(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개방사회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자녀세대의 교육적 성취가 부모세대에서의 기회의 불평등을

현재의 직업적 지위로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귀속적 요인의 전체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현직의 경우 귀속적 요인의 효과를 합산하면 전체 효과는 .508(=(직접효과, .067) + 간접효과(.211 + .092) + (본인의 학력을 통한 간접효과 .138))로 업적적 요인의 전체효과(.653=.349+.30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본인의 학력이 미치는 직접효과(.34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남녀별 지위획득모형의 추정결과

<표 8>은 남녀별로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남녀별로 결과를 살펴보는 이유는 국내외 연구자들 대부분이 남성 취업자의 지위획득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비교한다는 측면에서, 동시에 남성과 여성 취업인구의 지위획득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경로모형의 경우 어떤 한 모형의 모수추정치를 다른 모형의 그것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나 지위 획득의 전반적인 경향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간접적인 해석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표 8> 남녀별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추정치

모 수	남성	여성
부친의 학력 → 본인의 학력($\gamma_{1,1}$)	.385(.020)*	.551(.018)
부친의 직업 → 본인의 학력($\gamma_{1,2}$)	.117(.020)	.060(.018)
부친의 직업 → 본인의 초직($\gamma_{2,2}$)	.134(.017)	.152(.016)
부친의 직업 → 본인의 현직($\gamma_{3,2}$)	.077(016)	.053(.017)
본인의 학력 → 본인의 초직($\beta_{2,1}$)	.458(.017)	.527(.016)
본인의 학력 → 본인의 현직($\beta_{3,1}$)	.359(.018)	.315(.020)
본인의 초직 → 본인의 현직($\beta_{3,2}$)	.303(.018)	.303(.019)
L^2	3.14 (d.f.= 2, p=.208)	33.52 (d.f.= 2, p=.000)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먼저 남성 표본의 모수추정치는 기본 성취경로에 있어서 국내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는 곧 [부친의 학력] → [본인의 학력] → [본인의 초직] → [본인의 현직]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지위획득과정의 주된 경로임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현재의 직업지위에 미치는 본인의 학력과 초직의 효과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본인의 학력이 초직의 효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7)을 비롯하여 외국 연구자들의 대다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국내 연구 결과 중 심윤종·양종회·김정탁(1986), 장상수(1996)와 차종천(1992, 1997)의 연구 결과와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다(<표 11> 참조). 장상수는 본인의 지위획득에서 본인의 학력보다 본인 초직의 영향력이 가장 큰 이유를 서구와 동아시아의 고용관행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장상수, 1996: 63). 이 같은 결과는 분석 자료, 분석 모형 및 학력과 직업변수의 측정상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으나 향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본인의 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친의 학력과 직업의 효과의 경우 부친의 학력이 부친의 직업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난다. 본 연구 결과를 비롯하여 장상수(1996), 차종천(1992, 1997)의 연구 결과는 블라우와 던컨(Blau and Duncan, 1967)의 결과 보다 부친의 학력이 본인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큰데 반해서 부친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장상수(1996: 62-63)는 이를 경제적 자본보다 문화적 자본을 중시하는 경향, 즉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교육 중시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성 표본의 모수추정치는 기본 성취구조에 있어서 남성 표본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다만 부친의 학력이 본인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부친의 직업이 본인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낮게 추정되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남녀별로 현직에 미치는 변수들의 전체효과와 직접 및 간접효과를 분해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표 9>는 이를 제시한 것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지위획득에 있어서 부친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남녀별로 본인의 현직에 미치는 귀속적 요인의 전체적인 효과 역시 남성은 .492인데 비해서 여성의 경우는 .549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 세대간 사회적 신분세습이 더 강하며 출신가족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사회이동에 있어서 남자보다 한층 더 제약된 조건하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본인의 학력이 직업적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본인의 학력이 미치는 전체효과에 있어서 여성(.475)이 남성(.457)보다 약간 높지만 직접효과는 반대로 남성(.359)이 여성(.315)보다 높다는 사실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남녀 표본간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표본분석(multi-sample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앞의 결과에 대한 지금까지의 해석이 모수추정치와 전체효과에 있어서 남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가정아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중표본분석은 이러한 가정이 타당한지를 검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표 10>은 다중표본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Model 4와 Model 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P값이 .05 이상), Model 4의 부합도가 가장 좋은 것으로 미루어(γ_{11}와 γ_{12}를 제외했을 때 부합도가 가장 좋아짐) 가족배경이 본인의 학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가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표 9> 본인의 현 직위에 미치는 전체, 직접 및 간접효과: 남녀별

변 수	본인의 현직		
	전 체 효 과	직 접 효 과	간 접 효 과
남 성			
부친의 학력	.198(.010)*	.000	.198
부친의 직업	.196(.015)	.077	.119
본인의 학력	.457(.014)	.359	.098
본인의 초직	.303(.018)	.303	.000
여 성			
부친의 학력	.261(.013)	.000	.261
부친의 직업	.128(.019)	.053	.075
본인의 학력	.475(.017)	.315	.160
본인의 초직	.303(.019)	.303	.000

*: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표 10> 남녀별 표본에 대한 다중표본분석(Multi-Sample Analysis) 결과

모 델	χ^2	Degrees of Freedom	P-value
Model 1	84.25	14	.000
Model 2	60.44	11	.000
Model 3	31.83	6	.000
Model 4	7.03	6	.318
Model 5	6.23	5	.284

주 : Model 1: β, γ와 ψ가 모두 같음; Model 2; β, γ만 같음; Model 3: β, γ_{11}만 같음; Model 4: β, γ_{22} 만 같음; Model 5: β만 같음

<표 11> 연구자별 지위획득 모형의 모수추정치 비교

연구자	나라	조사년도	ED_f[1]	OCC_2[2]	ED^3[3]	OCC_1[4]	R^2	표본	직업코드[5]
국외 연구자									
Blau and Duncan	미국	1962년	-	.12	.39	.28	.43	남성 20-64세	D
Chew, Seen Kong	싱가포르	1969/70년	.10	-	.50	-	-	21세이상 중국남자	D
			.00	-	.70	-	-	21세이상 중국여자	D
Featherman, et al.	호주	1965년	.04	.11	.28	.36	.39	남성 20세 이상	D
	미국	1962년	-.02	.11	.38	.29	.40	남성 20-40세	D
Herz	독일연방	1974년	-	.14	.48	-	.30	남성 경제활동인구	T
	미국	1974년	-	.07	.50	-	.28	남성 경제활동인구	T
Quah and Chew	싱가포르	1984년	-.12	.10	.36	-	-	남성 경제활동인구	D
			.15	-.00	.57	-	-	여성 경제활동인구	D
Roos	일본	1967년	-	.13	.38	-	.22	남성 20-64세	M
		1967년	-	.20	.35	-	.24	여성 20-64세	M
Wilson	아르헨티나	1960년	-	.06	.47	.29	.45	수도 남성가구주	S
	브라질	1960년	-	.20	.53	-	.44	수도 남성가구주	S
	칠레	1960년	-	.20	.40	.18	.33	수도 남성가구주	S
Treiman and Yip	오스트리아	1974년	-	.13	.54	-	.23	남성 25-64세	T
	브라질	1973년	-	.16	.52	-	.35	남성 25-64세	T
	영국	1972년	-	.18	.41	-	.26	남성 25-64세	T
	인도	1971년	-	.50	.17	-	.33	남성 25-64세	T
	일본	1975년	-	.16	.37	-	.21	남성 25-64세	T
	필리핀	1972년	-	33	.22	-	.18	남성 25-64세	T
	대만	1970년	-	.15	.35	-	.18	남성 25-64세	T
국내 연구자									
설동훈	한국	1978년	-	.08	.63	-	.45	임금노동자*	홍
	한국	1989년	-	.13	.41	-	.21	임금노동자**	홍
심윤종 외	한국	1986년	-	.02	.04	.66	.66	사무직***	홍
안치민	한국	1980년	.06	.26	.51	-			
장상수	한국	1990년	-	.06	.21	.45	.38	남성 경제활동인구	T
차종천	한국	1976년	.02	.44	.08	.46	.59	경상도출신****	홍
			-.02	.72	.07	.11	.65	전라도출신	홍
			-.04	.46	.15	.33	.51	기타지역출신	홍
	한국	1990년	-	.06	.18	.48	-	남성 경제활동인구	T
	한국	1995년	-	.10	.28	.43	-	남성 경제활동인구	T

주: 표 작성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음. Treiman, Donald J. and Ganzeboom, Harry B. G. 1990. "Cross-National Comparative Status-Attainment Research."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 9. pp 105-127.

1) 아버지의 교육. 2) 아버지의 직업 지위. 3) 본인의 학력. 4) 본인 초직의 직업지위 5) 직업코드: 홍 =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1983년). D = Duncan의 사회경제지수(1961년). M = Roos의 직업 임금율 척도(1985년). T = Treiman의 국제위세척도(1977년).

*: 제조업과 광업 및 서비스업 사업체의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 663명
**: 노동자수 30인 이상 사업체의 생산직과 사무직 노동자 1,865명
***: 사업체의 사무직 노동자 604명
****: 이하는 서울 거주 21세에서 65세 이하의 남성 가구주 774명 중 출신지역별 결과임

다. 연령집단(cohort)별 지위획득모형의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의 신분세습과 지위획득과정이 어떻게 연령세대를 거치면서 변해왔는가를 분석해 보기 위해 동일한 경로모형을 연령집단별로 추정하여 보았다. 연령집단은 관행을 따라서 각각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의 네 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20대의 경우 아직 세대내의 지위획득과정이 안정된 상태로 들어가기 전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아 변화경향은 나마지 3개의 연령동기세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앞에서 개관한 대로 트라이만(Trieman, 1970) 등의 산업화가설(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신분세습의 약화 및 업적요인의 영향강화가설)과 이에 대한 보우든(Boudon, 1973)의 대립가설, 그리고 디프릳-그러스키(Diprete and Grusky, 1990)의 지위유지가설 등을 검증해 보고 지위획득과정의 변화 추세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보다 엄밀하게 시계열적인 자료(time-series data)를 요구하지만 이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넘기고 여기에서는 코호트별로 변화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2>는 연령집단(cohort)별로 지위획득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표에 제시된 경로계수들을 통해 몇 가지 경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지위의 세대간 직접적 세습효과에 있어서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gamma_{1,1}$), 부모의 직업지위가 자녀의 초직에 미치는 효과($\gamma_{2,2}$) 어느 것에 있어서도 단선적인 감소나 증가를 하지 않고 "무경향적 변동"(Diprete and Grusky, 1990)을 보이는 반면, 세대내의 지위획득과정에 있어서 본인의 초직과 현직의 지위에 미치는 본인 학력의 직접적인 영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지위획득모형의 전체 구조에서 보다 총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귀속적 요인(부모세대의 사회적 지위)과 본인의 성취지위(즉, 교육 및 초직의 지위)가 최종적 지위로서 본인의 현직에 미치는 전체효과와 직접, 간접효과를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3>에 제시된 결과 중 전체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부친의 학력이 본인의 현직의 지위에 미치는 전체효과는 50대이상에서 30대에 이르는 세대교체기간 동안 증가하여왔으며(.172->.213->.226), 부친의 직업지위가 미치는 전체효과도 40대에서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지만 50대 이상과 30대를 비교할 경우 오히려 더 커진 것을 볼 수 있다(.142->.133->.167). 아울러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현직에 미치는 전체효과를 살펴보면 30대는 .596, 40대는 .538, 50대 이상은 .442로 나타나 귀속적 요인의 전체효과 또한 점차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인의 성취지위(특히 학력)가 현직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은 50대 이상에서 30대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거의 단선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487->.532->.589).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세대내 성취과정은 산업화가설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연령세대를 거치면서 업적적 요인(교육)이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나, 사회적 지위의 세대간 세습과정에 있어서는 산업화가설대로 귀속적 요인의 영향이 단선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반대로 증가하여 왔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하웉(Hout, 1989)이 아일랜드의 경험에 대해 지적한 대로, 한국사회의 경우도 단축된 산업화과정의 사회적 격변기(1960-1990)에 이루어진 세대간 신분세습체제가 전통적인 산업화가설에서 예상하는 대로 보다 열린 사회로의 단선적 진보를 보여

주는 대신 기회와 성취에 있어서 사회계급간 불평등이 계속 존속해 왔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표 12> 연령집단(cohort)별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추정치

모 수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
$\gamma_{1,1}$	.239(.021)*	.300(.021)	.401(.020)	.354(.019)
$\gamma_{1,2}$	.101(.021)	.171(.017)	.106(.018)	.147(.019)
$\gamma_{2,2}$	.116(.018)	.221(.017)	.084(.017)	.140(.017)
$\gamma_{3,2}$	.101(.017)	.077(.017)	.046(.016)	.030(.017)
$\beta_{2,1}$	.290(.018)	.398(.017)	.529(.017)	.453(.017)
$\beta_{3,1}$	.290(.018)	.330(.018)	.340(.018)	.358(.018)
$\beta_{3,2}$	.225(.018)	.295(.018)	.363(.018)	.283(.018)

*: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표 13> 연령집단(cohort)별 현직에 미치는 전체효과

변 수	본인의 현직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부친의 학력	.171	.000	.171	.226	.000	.226	.213	.000	.213	.172	.000	.172
부친의 직업	.295	.122	.173	.167	.052	.115	.133	.046	.087	.142	.031	.111
본인의 학력	.572	.368	.204	.589	.386	.203	.532	.340	.192	.487	.359	.128
본인의 초직	.370	.370	.000	.373	.373	.000	.363	.363	.000	.283	.283	.000

다음으로 <표 14>와 <표 15>는 남녀별로 지위획득모형의 모수추정치와 본인의 초직과 현직의 지위에 미치는 선행요인들의 전체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 15>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본인의 학력에 미친 부친 학력의 영향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크며 둘 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본인의 학력에 미친 부친 직업지위의 영향은 남성의 경우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친의 직업지위가 본인의 초직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컸으나 30대 이후의 경우 오히려 남성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친의 직업지위가 본인의 현직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본인의 학력이 본인의 초직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데 반해서, 현직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초직이 본인의 현직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변화추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점차 감소되고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15>는 각 연령집단에 대해서 남녀별로 현직에 미치는 변수들의 전체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위획득에 있어서 부친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컸으나 30대 이후부터 여성이 남성보다 커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부친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은 부친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과는 반대로

40대 이후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커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위획득과정에서 본인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은 여성보다 남성의 영향이 더 컸으며 그 폭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초직이 미치는 영향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영향이 더 큰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에 있어서 다소 혼란스러운데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남성과 여성간의 차이, 혹은 사회적 불평등이 어떤 특정한 경향(계속 증가 혹은 계속 감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16>은 연령집단간의 성취구조에서의 통계적 유사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표본분석(multi-sampl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모수추정치인 Γ와 B가 모두 같다는 Model 2와 $\gamma_{2,2}$와 B가 같다는 Model 3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집단간에 부친의 직업이 본인의 초직에 미치는 정도는 다르다는 가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령집단간 세습 및 성취구조상의 차이에 대한 다른 가정들은 전반적으로 통계적 유의미성을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위세습의 정도와 성취구조가 세대간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표 14> 연령집단(cohort)의 남녀별 모수추정치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	
모 수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gamma_{1,1}$	.150(.021)*	.318(.021)	.243(.021)	.441(.020)	.376(.020)	.428(.019)	.341(.020)	.435(.017)
$\gamma_{1,2}$	.067(.021)	.115(.021)	.216(.021)	.078(.020)	.124(.020)	.066(.019)	.136(.020)	.266(.017)
$\gamma_{2,2}$	.117(.018)	.050(.019)	.203(.018)	.238(.016)	.055(.017)	.170(.016)	.038(.016)	.079(.018)
$\gamma_{3,2}$	.112(.017)	.100(.018)	.093(.017)	.035(.018)	.059(.015)	-.004(.017)	.053(.014)	.046(.019)
$\beta_{2,1}$	.230(.017)	.289(.019)	.386(.018)	.502(.016)	.548(.017)	.537(.016)	.477(.017)	.512(.018)
$\beta_{3,1}$	.367(.017)	.220(.019)	.378(.018)	.183(.020)	.335(.018)	.244(.019)	.365(.018)	.214(.021)
$\beta_{3,2}$	.192(.016)	.217(.018)	.272(.017)	.378(.021)	.380(.017)	.386(.017)	.280(.018)	.290(.020)

*: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표 15> 연령집단(cohort)의 남녀별 현직에 미치는 전체효과

	전체효과			
변 수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이상
남 성				
부친의 학력	.062(.009)*	.117(.011)	.204(.013)	.170(.011)
부친의 직업	.162(.019)	.252(.019)	.147(.019)	.143(.019)
본인의 학력	.411(.017)	.483(.017)	.543(.016)	.498(.017)
본인의 초직	.192(.017)	.272(.017)	.380(.017)	.280(.018)
여 성				
부친의 학력	.090(.008)	.164(.011)	.193(.012)	.158(.010)
부친의 직업	.144(.019)	.154(.019)	.092(.019)	.165(.019)
본인의 학력	.282(.019)	.372(.018)	.451(.017)	.363(.020)
본인의 초직	.217(.019)	.378(.021)	.386(.020)	.290(.020)

*: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표 16> 연령집단(cohort)별 표본에 대한 다중표본분석(Multi-Sample Analysis) 결과

모 델	χ^2	Degrees of Freedom	P-value
Model 1	80.09	38	.000
Model 2	70.99	29	.000
Model 3	23.31	14	.055
Model 4	19.25	14	.156
Model 5	43.86	14	.000
Model 6	17.23	14	.244
Model 7	16.41	11	.127

주 : Model 1: β, γ와 ψ가 모두 같음; Model 2; β, γ만 같음; Model 3: β, γ_{11}만 같음; Model 4: β, γ_{12} 만 같음; Model 5: β, γ_{22} 만 같음; Model 6: β, γ_{32} 만 같음; Model 7: β만 같음

라. 출신지역별 지위획득모형의 추정결과

다음으로 우리는 지위획득모형의 출신지역별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위의 세습 및 성취과정에 있어서 출신지역별 차이와 차등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존재한다면 어떻게 존재하는가를 분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영남과 호남 출신간에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출신지역을 경남·경북, 전남·전북, 그리고 기타지역으로 묶었다. 김문조(1993)는 사법계(법관)를 제외한 정치(장, 차관, 국회의원), 군사(군장성), 경제(재벌 경영자, 은행장 등) 등 모든 부문의 엘리트들의 출신지역에 있어서 영남지역 출신자들이 호남지역 출신자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지역적 발전에 있어서도 영남지역은 거점 성장 정책의 결과로 산업기지로 개발된 지역이 많은 반면, 호남지역은 경제적 낙후지로 전락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표 17>은 출신지역별로 추정된 경로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모형의 추정결과 출신지역간의 차이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표본의 결과가 약간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 데 본문에서는 남성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지위세습 및 성취과정에서 경남/경북 출신과 전남/전북 출신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첫째로, 세대간의 지위세습의 정도에 있어서, 경남/경북이 전남/전북에 비하여 일관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즉, $\gamma_{1,1}$=.354:.345; $\gamma_{1,2}$ =.137:.043; $\gamma_{2,2}$ =.169:.132). 즉 세습부친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학력 및 에 미치는 영향과 초직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후자에 비해 전자의 경우가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세대내 지위획득과정에 있어서는, 경남/경북의 경우 본인의 학력이 초직에 미치는 영향($\beta_{2,1}$=.467:.445), 이어서 본인의 초직이 현직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beta_{3,2}$=.360:.192)이 전남/전북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초직의 지위가 현직의 지위로 이어지는 정도에 있어서 두 지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본인의 학력이 현직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beta_{3,1}$=.320:.405)은 전남/전북이 경남/경북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7> 출생지의 남녀별 구조방정식 모형의 모수추정치

모 수	경남/경북		전남/전북		기타 지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gamma_{1,1}$	.354(.020)	.591(.018)	.345(.020)	.494(.020)	.422(.020)	.536(.020)
$\gamma_{1,2}$	.137(.020)	.064(.018)	.043(.020)	.095(.017)	.136(.020)	.038(.020)
$\gamma_{2,2}$	.169(.017)	.274(.016)	.132(.017)	-.018(.017)	.106(.018)	.139(.016)
$\gamma_{3,2}$	.088(.016)	.057(.017)	.081(.016)	.125(.017)	.070(.016)	.000(.017)
$\beta_{2,1}$	.467(.017)	.463(.016)	.445(.017)	.558(.017)	.454(.017)	.531(.016)
$\beta_{3,1}$	.320(.018)	.322(.018)	.405(.018)	.328(.020)	.362(.018)	.320(.020)
$\beta_{3,2}$	.360(.018)	.339(.019)	.192(.018)	.228(.019)	.318(.017)	.294(.020)

*: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표 18> 출생지의 남녀별 현직에 미치는 전체효과

변 수	전체효과		
	경남/경북	전남/전북	기타
남 성			
부친의 학력	.173(.011)*	.170(.012)	.214(.012)
부친의 직업	.207(.019)	.127(.019)	.172(.019)
본인의 학력	.488(.017)	.491(.017)	.506(.017)
본인의 초직	.360(.017)	.192(.018)	.318(.017)
여 성			
부친의 학력	.283(.013)	.303(.013)	.255(.013)
부친의 직업	.181(.019)	.226(.018)	.058(.020)
본인의 학력	.479(.017)	.543(.016)	.476(.018)
본인의 초직	.339(.019)	.491(.016)	.294(.020)

*: 괄호안의 수치는 표준오차임.

이러한 추정결과를 정리하면 경남/경북의 경우 전남/전북에 비해 부모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세대에 보다 확실하게 세습이 되고, 교육을 통한 초직의 지위획득효과는 두 지역출신이 비슷한 반면, 일단 획득한 초직의 지위가 현재의 직업지위로 연계되는 정도가 전자의 경우가 후자에 비해 훨씬 강하게 나타나 호남출신보다 영남출신자들의 지위획득과정이 보다 정연하고 일관되며 부모세대의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남출신들의 경우 지위획득과정이 부모세대로부터의 사회적 지위의 세습이나 세대내에서의 정연한 연계(초직->현직)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대신 본인의 학력을 통하여 결정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8>은 본인의 현직에 미치는 각 선행변수들의 전체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영호남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성 표본의 경우 각 선행변수들이 본인의 현 직위 획득에 미치는 전체효과에 있어서 본인의 학력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유사한데 비해 다른 변수들은 경남/경북 출신들이 전남/전북 출신들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 특히 두드러진 것은 부친의 직업이 미치는 전체효과와 앞에서 지적한 대로 본인의 초직이 미치는 직접효과이다. 경남/경북 출신들은 각각 .207과 .360인

데 비해서 전남/전북 출신들은 .127과 .192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이러한 가정들과 해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경남/경북 출신과 전남/전북 출신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다중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9>는 다중표본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으로 분석 결과 영호남간에 성취구조모형이 같다고 가정한 대부분의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P값이 0.05 이상)으로 나타나 성취구조와 경로계수에 있어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표 19> 남성의 출신지역(영남/호남)별 다중표본분석(Multi-Sample Analysis) 결과

모 델	χ^2	Degrees of Freedom	P-value
Model 1	47.46	14	.000
Model 2	38.22	11	.000
Model 3	21.31	6	.002
Model 4	25.74	6	.000
Model 5	21.35	6	.002
Model 6	22.71	6	.001
Model 7	22.71	5	.001

주 : Model 1: β, γ와 ψ가 모두 같음; Model 2; β, γ만 같음; Model 3: β, γ_{11}만 같음; Model 4: β, γ_{12} 만 같음; Model 5: β, γ_{22} 만 같음; Model 6: β, γ_{32} 만 같음; Model 7: β만 같음

2) 이러한 결과를 다른 방향에서 해석하면 경남/경북 출신의 경우 출신 배경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이 호남지역에 비해 더 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곧, 호남지역이 경제적으로 소외된 것은 사실이나 영남지역 출신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더 많이 배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간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에서 영남지역 내의 불평등의 정도는 호남지역보다는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본모형을 통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을 거치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획득과정(교육->직업)이 어떻게 어느 정도 개인의 귀속적 지위(부모의 사회적 지위(교육수준·직업지위))에 의해 결정되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사회적 지위의 세습-획득과정이 연령세대(age cohort)를 거치면서 보다 열린 구조로 발전했는가 아니면 고착화의 과정을 밟았는가, 그리고 사회적 지위의 세습 및 획득과정이 지역적으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기본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신분세습의 과정에서 부친의 직업보다 부친의 학력의 영향이 훨씬 크며 지위획득과정에서 가족배경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본인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본인의 학력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본인의 교육수준이 사회적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지만, 그것이 곧 한국 사회에서의 성취구조가 귀속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성취업적(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개방사회로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오히려 자녀세대의 교육적 성취가 부모세대에서의 기회의 불평등을 현재의 직업적 지위로 중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연령집단별로 지위획득과정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세대내 성취과정은 산업화가설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연령세대를 거치면서 업적적 요인(교육)이 지위획득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져가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으나, 사회적 지위의 세대간 세습과정에 있어서는 산업화가설대로 귀속적 요인의 영향이 단선적으로 감소하지 않고 반대로 증가하여 왔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산업화가설에서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기회와 성취에 있어서 사회계급간 불평등이 계속 존속해 왔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산업화에도 불구하고 계층간 지위는 유지될 것이라는 디프릳-그러스키(Diprete and Grusky, 1990)의 주장을 일정정도 뒷받침해준다.

마지막으로 출신지역별 차이에 대한 분석은 경남/경북의 경우 전남/전북에 비해 부모세대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세대에 보다 확실하게 세습이 되고, 일단 획득한 초직의 지위가 현재의 직업지위로 연계되는 정도에 있어서 전자의 경우가 후자에 비해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호남출신보다 영남출신자들의 지위획득과정이 보다 정연하고 일관되며 부모세대의 사회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우리 사회의 지위세습과 성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보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본 연구는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이익/불이익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옮겨가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삼대에 걸친 혹은 그 이상의 세대간 계층화에 관한 시각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둘째, 본 연구는 가족들 간의 차이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가족내의 차이, 곧 형제자매간의 차이나 상호영향을 살펴보지 못하였다. 특히, 우리 사회의 경우 장자의 지위가 다른 가족 성원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보완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문조. 1993. "지역주의의 형성과정과 특성." 『오늘의 한국사회』. 임희섭 · 박길성 편. 나남.

방하남 · 이성균. 1996. "신흥 개발국에서의 구조변동과 세대간 계급이동: 한국과 대만의 경우" 『한국사회학』 제30집(가을). 한국사회학회.

방하남 · 안주엽 · 장지연 · 박은경 · 호정화 · 정혜원. 1999.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한국노동연구원.

설동훈. 1994. "한국 노동자들의 세대간 사회이동, 1978 1989년."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계급과 한국사회』. 한울 아카데미. pp 237-278.

심윤종 · 양종회 · 김정탁. 1986. "사무직 근로자의 직업 및 직장생활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제27권 제1 호. pp. 187-303.

안치민. 1993. "직업이동과 계급이동." 『오늘의 한국사회』. 임희섭 · 박길성 편. 나남.

양종회 · 유석춘 · 박길성. 1995. 『동남아시아의 사회계층-5개국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장상수. 1996.『산업화 과정에서의 사회이동과 그 변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차종천. 1992. "사회계층의 구조와 과정."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형평』. 황일청 편. 나남.

———. 1997. "직업구조와 분배의 불평등."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정성』. 석현호 편. 나남. pp 71-140.

홍두승.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법문사. pp 169-213.

홍두승 · 구해근. 1993. 『사회계층 · 계급론』. 다산출판사.

Behrman, J. and Paul Taubman. 1976.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come and Wealth." *American Economic Review* 66: 436-440.

Blau, P. M. 1964.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and Duncan, O. D. 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Wiley.

Boudon, R. 1973.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Mobi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ies*. New York: Wiley.

Chew, Seen Kong, 1977. "Education and Occupational Attainment of Singapore's Chinese Women and Men." *Sociological Working Paper*. No. 59. Singapore : 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Singapore.

Curtis, R. F. 1986. "Household and Family in Theory on Inequa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Dahrendorf, R. 1959.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DiPrete, T. and Grusky, D. B. 1990. "Structure and Trend in the Process of Stratification for American Men and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6: 107-143.

Hauser, R. M., Sheridan, J. and Warren, J. R. 1998. "Socioeconomic Achievements of Siblings in the Life Course: New Findings from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Working Paper No. 98-02.

Hout, Michael. 1989. *Following In Father's Footsteps: Social Mobility in Irel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Ganzeboom, Harry B. G., De Graaf, P. M. and Treiman, Donald J., 1989. "A Standard International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Revised version of 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s of th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Goldman, Robert and Ann Tickamyer. 1984. "Status Attainment and the Commodity Form: Stratification in Historical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196-209.

Griliches, Z. 1979. "Sibling Models and Data in Economics: Beginnings of a Surve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S37-S64.

Joreskog, K. G. and Sorbom, D. 1989. *LISREL 7: A Guide to the Program and Applications.* SPSS Inc.

Kelley, J. and H. S. Klein. 1981. *Revolution and the Rebirth of Inequality: A Theory Applied to the National Revolution in Bolivi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88. "Wealth and Family Background in the Occupational Career: Theory and Cross Cultural Data."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9: 94-109.

Kuo, Hsiang-Hui Daphne and Houser, R. M, 1995. "Trends in Family Effects on the Education of Black and White Brothers." *Sociology of Education* 68(2): 136-160.

Lenski, Gerhard. 1966. *Power and Privilege: A Theory of Social Stratification*. New York: McGraw-Hill.

Parkin, F. 1971.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London: MacGibbon & Kee.

Quah, Steller R., Seen Kong Chiew, Yiu Chung Ko, and Sharon Mengchee Lee, 1991. *Social Class in Singapore*. Singapore : Time Academic Press.

Reher, D. S. 1998. "Family Ties in Western Europe: Persistent Contras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203-234.

Sorokin, P. A. 1959[1927]. Social and Cultural Mobility. New York: Free Press of Glencoe. pp 139-160.

Toennis, Ferdinand. 1887[1957]. *Community and Society*. (Ed. trans.) Charles P. Loomis. New York: Harper Torchbooks.

Treiman, D. T. 1977. *Occupational Prestige in Comparative Perspective*. New York: Academic Press.

———. and Ganzeboom, Harry B. G. 1990. "Cross-National Comparative Status-Attainment Research."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Vol. 9. pp 105-127.

———. 1997. *Social Stratification in Eastern Europe after 1989: General Population Survey - Codebook.* Two volumes. Los Angeles: UCLA, Department of Sociology.

Warren, J. R. and Hauser, R. M. 1997. "Social Stratification Across Three Generations: New Evidence From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561-572.

Weber, Max. 1947.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Trans. by A. 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